

<제 52 호>

2021 년 12 월 10 일

(홈페이지: <https://kascn.org/>)

## ◆ 3 세 이하 자녀 가정 나눔 프로젝트

### - YWCA/ 이보교 함께 진행

대림절 세번째 주일을 맞이할 모든 이보교 가족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의 광풍에서도 우리를 이곳까지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주 전체 한인들 6 명 가운데 1 명 꼴인, 절망적인 상황의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곁에 서도록 이보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고난받는 이웃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보교는 2021 년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더 깊은 성찰과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보교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더욱 성숙해질 2022 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드립니다. YWCA 와 이보교가 함께 임신초기부터 3 세의 자녀를 둔 부모나 돌보는 분들에게 나눔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신분을 비롯한 어떤 자격조건도 없고 다만 임신초기부터 3 세 이하의 자녀를 둔 뉴욕에 거주하는 가정이면 됩니다. 혜택은 첫째, 풍성한 사랑나눔박스를 매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드리고, 둘째 싱싱한 푸드 팬트리를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드리며, 셋째, 성탄 어린이 장난감 나눔잔치에 초대하여 행복을 나눕니다.

내년부터는 더 발전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저출산 팬데믹 시대에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718-309-6980)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돌보는 격조있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뉴욕 이보교 위원장 조원태 목사 드림

## ◆ 이민개혁법안이 불안하다

-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이자 법사위원장이 상원 조정관의 세번째 기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경우 민주당이 50 표를 모아 뒤집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조 맨친 보수파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신은 상원 조정관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5 년간 기다려온 이민개혁법안 통과의 기회를 이렇게 날리면 안된다.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 두 사람이 나머지 48 명의 상원의원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주의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민개혁법안은 70%에 가까운 미국시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다. 천 백만 서류미비자들의 운명을 두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난 몇 개월간 민주당은 이 두사람은 때문에 양보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 6 조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2 조 달러로 깎였고 환경관련 조항과 제약회사 관련 조항들도 상당히 양보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양보하라는 말인가?

## 어떻게 할 것인가?

구부러지는 쇠막대를 펴려면 중앙까지만 꺾으면 안된다. 그 이상으로 꺾어야 한다.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까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협상을 하는 친 이민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또한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다카 드리머들과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한다. 아울러 상원조정관의 결정에 상관없이 모든이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용하는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참여센터의 서명운동 Goaction.net 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 불법인 사람은 없다!

<https://www.latimes.com/politics/story/2021-12-08/democrats-weigh-overturn-parliamentarian-immigration>

## ◆ 뉴욕시 소기업 \$10,000 무상 지원금 신청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12/08 부터 1 차분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 영업장이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는,
- 500 인 이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소기업으로,
- low-to-moderate census tract 으로 지정된 곳(아래 링크에서 위치 확인)이나 <https://covidresilience.nyc/lmi-map/>
- 또는 위 low-to-moderate census tract 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음식, 숙박업을 하는 비즈니스이고,
- 2019 년 10 월 1 일에 영업을 하고 있었고,
- 이 지원금 신청시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 2019 년 전체 대비 2020 년 전체 매출액 또는 수입(Gross Receipt/Revenue)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 2019 년과 2020 년의 같은 어느 1 분기 (Quarter)에 매출액이나 수입(Revenue)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가능 합니다.

단, 정부에 내는 세금이 연체된 소기업이나, 요식업지원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이나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받은 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아래 링크에서)

<https://nyccovidresilience.mylenistry.com/ - /login>

### 자세한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안내서(한국어)

<https://covidresilience.nyc/wp-content/uploads/2021/12/KOREAN-NYC-Small-Business-Resilience-Grant-Application-Guide-12.02.21.pdf>

### 자세한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지원금 공식 웹사이트 참고 (아래 링크)

<https://covidresilience.nyc/>

## ◆ 교계 지도자들 국제 인권의 날 랠리

### - 뉴욕시 5 개 보로 법원 앞 랠리 펼쳐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국제 인권의 날에 맞춰 각 교단에 속한 성직자들이 오늘 뉴욕 5 개 보로에 있는 5 개 법원들 앞에서 랠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장로교단(PCUSA) 뉴욕시노회의 정의목회위원회에서 함께 랠리에 참여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뉴욕에 위치한 Rikers 섬의 교도소에서 14 명의 수감자들이 비인도적으로 목숨을 잃었고 뉴욕 교도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식, 의료 서비스, 심지어 법정 날짜까지 운송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판사와 검사들은 322 명의 사람들을 이런 치명적이고 비인도적인 감옥으로 보냈는데, 이런 상황을 중지하고 때론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석방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랠리였습니다. 현재 뉴욕 교도소의 90%는 유색인종이며, 뉴욕 교정위원회



# News Letter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KACE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연락처: 646-450-8603

5/5

코헨 박사는 "감옥으로 보내는 모든 사람은 다치거나 죽을 위험의 비인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사 61:1)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6)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교도소 사역에 참여해 몇 번 교도소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서 때론 억울하게 때론 비인도적으로 이런 처사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한 죄를 사죄하게 하는 랠리에 참여하고 돌아와 나눕니다.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http://www.kascn.org)**